

인권정보자료실
ESg1.13

노숙인복지 연구

제 1 호 · 2 0 0 0 · 6

제 1 호
2000 · 6

인권정보자료실
ESg1.13

노숙자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인복지연구회

노숙인복지연구

제 1 호

2000년 6월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인복지연구회

노숙인복지연구회 구성 (가나다 순)

- 김유경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연구교육 과장)
- 김혜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남기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신원우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최우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 황운성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소장)

노숙인복지연구 제 1 호

2000년 6월 27일 인쇄
 2000년 6월 30일 발행

편집 및 발행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인복지연구회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82 화신빌딩 502호, (우) 100-161
 전화 777-5217 / 팩스 777-5393 / E-mail sscch@chollian.net
 인쇄 원인터내셔널(전화 2267-0890 / 팩스 2278-7972)

노숙인복지연구 제1호

차 례

책을 내며	1
남기철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이해	5
김유경 상실의 관점에서 본 홈리스문제	39
김혜성 노숙인쉼터의 원조환경요소에 관한 연구	65
신원우 노숙인을 위한 아웃리치프로그램의 원칙과 과제	103
부 록 노숙문제에 대한 외국문헌 발췌문	139

노숙인복지연구회

교육과 노숙인에 대한 태도간 관계	141
무노동에 대한 병리화를 넘어	148
쉼터노숙모와 저소득일반모의 욕구특성	156
노숙위험집단의 자조전략과 자원	161
노숙인에 대한 낙인	167
뉴욕가족들이 노숙인이 되는 경로	177
노숙 주거 이전에 대한 역동분석	185
가족노숙 입소기간 영향요인 분석	189
노숙인위험집단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	191
성인노숙인들의 디스트레스,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195
연구에서 행동으로	200
SRO호스텔 입소자에 대한 현장기반서비스	206
도시 노숙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고찰	212
이중진단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제공	226

노숙의 의미 : roofless냐, rootless냐?	244
알콜중독 노숙인에 대한 치료와 연구	252
홍콩의 거리노숙	263
캘리포니아의 노숙인	271
노숙인개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	273
미국의 노숙문제: 상황, 유형, 개입	277
노숙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282
노숙만성화에 대한 예측변인	289
노숙인들의 결연, 성, 그리고 부모라는 지위	291
결연해체와 잠식: 노숙이해를 위한 모델	302
노숙문제 이해를 위한 모델	311
다양한 유형의 노숙인집단	321

책을 내며...

노숙자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흘렀다. 다시서기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도 벌써 19개월째이다.

처음 노숙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 이전에 우리 사회가 노숙자 문제를 다루어본 경험이 없었던 지라 모든 것이 다 개척해가야만 하는 일이었다.

이런 막막함을 헤쳐나가고자 우리는 간접적으로 외국의 경험이라도 배워야 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의뢰하여 외국의 홈리스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소개 하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숙자들은 외국의 홈리스와 어떻게 다를까 라는 의문속에서 한국 사회 노숙자들의 노숙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의뢰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들이 「영국·일본·미국의 홈리스 실태와 대책」와 「노숙의 원인과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숙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너무 적다는 생각에, 늘 불만이었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고자 그 동안 노숙자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노숙자 문제로 준비중인 사람들을 만나서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머리를 맞대면 뭔가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본격적으로 노숙자 문제에 대해 공부도 하면서 논

의를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모임 이름을 “노숙인복지연구회”라고 붙였다. 처음엔 우리가 아직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학습팀으로 성격을 매겼다. 그후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학습을 해온 지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들이 공부한 것을 활자화하여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자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모임 구성원들은 모두 반대를 했었다. 사실 우리들이 했던 학습의 내용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조차 없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었던 나로서는 우리들의 작은 고민이나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임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정작 활자화하려고 하니 다시 부끄러움이 앞서는 건 사실이다. 특히 우리 학습모임에 가장 작은 기여를 했던 나로서는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든다.

그간 남기철 선생님이 팀장 역할을 맡고, 김유경 선생님이 간사의 역할을 열심히 해주었다. 그 성실함으로 모든 사람을 감탄케 했던 신원우 선생님,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아이 엄마로서 바쁜 가운데서도 모범을 보여주신 김혜성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임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늘 노숙자 분들에게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 최우림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한가지!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노숙자’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노숙인’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 그분들의 인권을 좀더 옹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다. ‘자(者)’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좀더 천하게 대할 때 쓰이는 말이다. 예를 들어 ‘부랑자, 장애인, 정신박약자……’, 이런 말들은 그들이 일반인과 구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강했을 때의 용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과 하나가 되고 사회가 그분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용어도 바뀌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순간 이후 우리는 “노숙인”이라는 말을 쓸 것을 제안한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함이 있겠

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우리의 이 작은 열매가 부디 노숙인 지원에 작은 힘을 보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책의 편집을 맡아서 수고해준 김유경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린다.

다시서기지원센터 소장 황운성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이해

남기철¹⁾

1. 들어가는 말

최근 정부와 많은 민간단체에서 노숙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숙인 문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명확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200개에 달하는 노숙인 보호시설이 '쉼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활을 도모하는 것을 일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쉽게 달성되고 있지 않으며 여기서 노숙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학문적, 실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경우에 노숙인들에 대해 빈곤과 실업양상을 기본적인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구직훈련이나 재취업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노숙인들은 일반 실직자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노숙인 쉼터나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천현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경험이기도 하다²⁾. 이와 관련하여 노숙인(homeless) 혹은 노숙

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2)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가 1999년 동절기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지원의 재
활프로그램 실시결과인데 이 중에서 일반 실직자와 노숙인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homelessness)의 심리사회적 손상 혹은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노숙은 한 개인에게 생활상의 커다란 위기이며 이는 심리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반응을 가져온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숙(homelessness)'이라는 것은 단지 '주거지가 없는 것(houseless)' 이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노숙생활은 심리사회적인 손상을 가져오므로 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건강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사실이다.

노숙인들이 노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과는 무언가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외국의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양상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연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공통적으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우울, 신체화, 정신분열증, 사회적 지지의 결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적 통제소 성향,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 두가지의 양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연구는 많으나,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특정 관점이나 이론에 의해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노숙인 문제에 관한 합의된 이론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므로 규범적인 지적이나 일부 양상에 대한 적은 표본의 실증적 현황조사가 일반적 양상이다. 더구나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노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 연구들이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해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노숙인의 심리사

한 경우에 노숙인들이 자활프로그램 성과가 일반 실직자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실노협(2000), "1999 동절기 노숙자재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1999), "노숙자재활프로그램 보고서" 등 참조

회적 특성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양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양상을 특정한 관점에 의해 재구성하고 있는 몇몇의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노숙인 문제의 양상과 특성

2-1. 노숙인의 수와 양상

노숙인의 범주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숙소가 없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일컫지만 미국 NCH의 정의에 따르면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주로 길거리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의 장소... 등에서 자는 사람'으로 규정된다(NCH, 1998). McKinney 법에서는 노숙인을 (1) 밤을 보낼 적절한 고정적이고 정규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 (2) 밤을 보내는 주 주거지로 - 일시적인 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혹은 사설의 임시보호시설, 수용을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임시적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사람이 자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공공이나 사설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노숙인 수를 2000년 1월 기준으로 5,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5,000명은 노숙인 쉼터에 그리고 500명은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절대다수인 70%의 3,870명 가량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노숙자대책반과 서울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가 1999년 10월 8일, 14일, 15일의 3차례에 걸쳐 23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서울시의 노숙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60-630명의 길거리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노숙인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접근 경험이 우리보다 앞선 미국에서의 실태파악의 시도가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S-Night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 시카고, 뉴올리언즈,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의 5개 지역에서 노숙인들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임시보호시설과 길거리 장소를 정해진 날에 일제히 조사하여 노숙인의 수를 약 23만명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노숙인의 수를 과소평가한 것일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학자들에게서 표방되었다(Wrights 등 1998). 이와 같이 일정시점에 여러장소에서 일제히 관찰한 숫자를 더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노숙인의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로, 측정하려는 숙소에 있었으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uncounted)이 있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조사팀이 발견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인(uncountable)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경험적 근거로서 S-Night에서는 길거리 노숙인(49,734)보다 쉼터 노숙인(178,636)이 더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길거리 노숙인이 몇배 더 많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가 있음을 볼 때, 쉼터 노숙인의 수는 어느 정도(Wrights의 주장은 약 90%) 파악이 되었으나 길거리 노숙인의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노숙인이 많이 모여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모여 노숙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자가 세는 방법³⁾으로 정확한 노숙인의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1988년에서 1992년에 걸쳐 뉴욕인구의 3%, 필라델피아에서 1990년과 1992년 사이에 전체인구의 3%가량이 우리나라의 '쉼터'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노숙인 보호시설(shelter)을 임시주거로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엄밀히 말해 노숙은 한 개인의 삶에서 영구불변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없어 노숙을 하는 사람의 수 보다는 노숙을 경험한 사람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NCH, 1998).

James는 특정 시점에 노숙인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체 노숙인에 비해서는

3) 이를 노숙인의 수를 파악하는 'point-in-time count'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조사자가 잘 모르는 지역의 노숙인이 파악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그 수가 과소평가될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노숙하는 사람이나 활동적으로 이동하는 노숙인보다는 '만성적'으로 노숙하거나 질환 및 중독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부분이며 더 적절한 파악방법은 '노숙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특정 시점에 관측된 노숙인에 대한 정보로부터 노숙의 위험에 처한 사람의 전체 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연령 - 16)/노숙의 spell] * [12/(현 회기의 길이 * 2)]⁴⁾

그는 콜로라도 지역에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 임시보호시설에서 1,755명, 길거리나 다른 장소에서 850명, 종합 2,605명의 노숙자가 관측이 되었으나 노숙의 위험에 있는 수는 이보다 훨씬 큰 86,000명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숙의 spell이나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지 않아 이와 같은 위험 수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현재 일제조사를 통해 관찰된 노숙인의 수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노숙이라는 위기에 맞닥뜨리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 또한, 우리나라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13,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도 바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숙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물론 이 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몇가지 교정해야 할 전제를 필요로 한다. 우선 노숙의 spell은 성인시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성인기를 구별하는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고, 조사된 노숙인은 현재 회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이 식에서 좌측은 성인기에서 1년에 노숙회기를 맞이할 확률을 통해 관측된 해당 노숙인이 몇 명의 유사한 위험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측은 그 노숙인이 개월 수로 표시한 현 회기의 길이에 따라 1년의 노숙기간에 관측될 사람 몇 명을 나타내는가를 표시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26세인 노숙인이 성인기에 2회 노숙을 했고 현재 6개월째 노숙 중이라면, 그리고 현재 노숙인으로 관측이 되었다면, 수식에 따라 $5 \times 1 = 5$ 를 통해 이 1명이 관측되었다는 것은 5명의 동일한 노숙 위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개략적인 파악이 되는 것이다.)

5) James는 수식을 통해서 86,000명의 노숙의 위험에 있는 사람 중 그 해에 노숙할 확률이 3-10%인 저위험 노숙인이 64,800명, 10% 이상의 고위험 노숙인이 21,200명임을 파악했고 특정 해의 노숙확률이 10%라는 것은 10년에 걸쳐서 본다면 65%의 노숙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노숙(homeless)은 무주택자(houseless)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노숙인의 개념은 단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사적인 정상적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해체, 정상적인 경제사회생활에서의 이탈, 사회적 지지망의 붕괴 등 생활상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심신의 건강문제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와 깊게 관련된다.

노숙인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중 직업, 소득 관련 내용을 논외로 한다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특징으로는 크게 정신건강, 알코올 및 약물중독,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논의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정신건강의 문제

노숙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자료수집이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현황에 관한 조사결과는 아직 동일하게 안정성 있는 수치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건강문제를 가진 노숙인의 비율도 연구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숙인들이 정신적 건강의 문제가 노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몇의 연구(Bhugura, 1996; Shinn & Weitzman, 1990; McChesney, 1995 등)에서 노숙인들은 정신분열증과 인격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2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NCH는 미국에서의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대략 20-25%의 노숙인이 정신건강에서의 문제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NCH, 1998). 이는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2-5배의 수치라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우울과 신체화 증상은 일반 기준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조사에서도 거주가 있는 성인에 비해 노숙인들은 임상적인 우울,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시도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2-5배 가량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chutts, 1994).

인지와 태도 측면에 대한 조사에서도 Smith(1991)의 연구에서는 노숙인들은 인지적 역기능성이 있음이, 그리고 Goodman 등의 연구(1991)에서는 노숙인들이 외적 통제소를 가지고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Gory 등(1990)은 스트레스를 주는 외상사건으로서 노숙의 영향에 대해 노숙과 정신건강에 대한 중개모형(mediation model)을 제시하고 특히 우울증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노숙이라는 생활조건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손상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서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노숙인의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으로 대개 위에서 지적한 바와 유사하게 일반 인구층에 비해 높은 정신건강 취약자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관련시설 운영에서의 '탈시설화' 흐름을 노숙인 문제 심각화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장들도 있다. 이 정신건강의 문제는 노숙인들이 가지는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제시되면서 노숙생활에 빠지게 되는 원인특성으로 많이 언급되곤 했지만 반대로 노숙생활의 산물로서 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숙인들의 정신질환이나 건강상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자료는 빈약한 편이다. 이는 조사방식이 노숙인의 응답에 기초하고 있고 정신질환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그만큼 실태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노숙인의 80% 이상이 건강하다고 응답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쉼터 등 노숙인 임시보호숙소에서 조사에 의하면 많은 수가 폐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기보고식 자료수집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건강이상이 약 20%,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이 약 5%로 보고하고 있다. 인의협(1998)의 노숙인건강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CL-90를 통해 파악한 결과 신체화, 우울, 공포불안, 불안의 영역에서 일반 기준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노숙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에서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자유의 집'에서 CIDI를 활용하여 측정된 결과 우울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비율이 일반인구층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또 하나 주목할만한 연구결과는 길거리 노숙인과 쉼터노숙인 사이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노숙인은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수가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숙인들의 길거리 노숙생활은 기본적인 생물학적 안전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다. 노숙인 보호시설은 노숙인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재활 내지는 자활할 수 있도록 자원을 알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의 노숙생활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ory 등의 연구(1990)에서 버밍햄(Birmingham)의 길거리 노숙인과 시설보호 노숙인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숙기간'과 특히 '길거리 노숙'이 우울 증상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의협(1998)의 연구에서 알코올의존성 환자는 길거리 노숙인들에게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관한 결과에서도 노숙인 288명을 대상으로 간이 정신진단 검사도구인 SCL-90를 이용한 분석결과 노숙인 보호시설인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에 비해 서울역과 을지로 등지에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노숙인들은 신체화, 우울, 불안, 공포, 정신증, 강박증, 대인예민성의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건강 영역에서 이상자(t-score 70점 이상)의 비율이 길거리 노숙인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2)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과 약물중독 및 의존성은 노숙인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문제양상이다. 이는 사실상 정신건강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Fischer와 Breakey(1991)는 노숙인들에게서 알코올과 약물 중독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 질환이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Wright(1990)의 연구에서 알코올 및 약물 중독은 22개로 분류한 노숙 요인에서 첫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중독자의 비율은 조사시기와 장소에 따라 노숙인의 22%에서 66%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숙인들이 일반인보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성향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Joseph(1992)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노숙인들 중 35-40%가 심각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다소 문화의 차이가 있겠지만 10-20%의 노숙인이 약물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10-20%는 알코올 및 약물 문제와 다른 정신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진단 노숙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조사에서 매일 술을 마시는 노숙인은 전체의 12%로 일반 국민의 음주율과 비교하여 3배 가량이 된다. 48%의 노숙인이 매일에서 1주 1-2회 이상의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의협이 남성 노숙인 35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1998)에서도 거리 노숙인의 40%, 쉼터노숙인의 13% 내지 26%가 매일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이나 빈도 뿐만 아니라 음주양상과 관련 요인의 문제에

관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한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1999)의 조사에 따르면 29.6%가 '알코올 의존'으로 분류되어 일반인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음주문제는 노숙상태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노숙인의 생리사회적 역기능을 심화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하게 허용적인 음주습관과 음주문화를 고려해 볼 때, 음주문화가 노숙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1999).

3) 사회적 지지

노숙인의 생활양상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망 혹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부분이다. 외국에서의 많은 연구들(Bassuk & Rosenberg, 1988 ; Rossi et al., 1987 등)에서 노숙인의 사회적 지지가 약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노숙인의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하다는 특성은 노숙인이 되는 원인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과정이나 결과의 측면에서 모두 이야기되고 있다. McChesney(1995)는 사회적 관계망은 빈곤자가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은 주거를 유지하거나 주거공간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원의 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는 노숙인으로서의 전락과정에서 중요한 완충요인으로 보았으며 아무리 현재의 빈곤과 가족해체 상태가 심각하더라도 친척이나 친구와 주거를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노숙으로의 전화를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사

회적 지지망이 노숙을 막는 안전망의 구실을 하는 만큼 노숙인들은 사회적 지지망이나 유대에서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Shinn & Weitzman, 1990).

사회적 지지망과 관련하여 사회적 연계단절(social disaffiliation)의 개념도 많이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를 노숙에 앞서 일어나는 선행조건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노숙이 사회적 고립과 대인불신을 가져와 사회적 단절을 증폭시킨다는 점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이는 Bassuk과 Rosenberg(1988)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빈곤의 상황에서 도와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도록 하여 노숙인과 일반 빈곤자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Shinn 등(1989)의 연구에서는 노숙인의 노숙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입증하고 있다.

노숙인들은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점은 가족이 함께 노숙을 하고 있거나 현재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5% 선에 지나지 않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미혼인 경우가 전체의 42.6%인데 노숙인들의 연령이 30세 이상이 9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노숙인들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나타난다. 또한 별거나 이혼 등 가족해체의 경우도 35%가 넘고 있어 가족으로 대표되는 밀접한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하다는 점이 노숙인의 큰 특성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숙인들이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하다는 특성은 그 자체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이 노숙생활과 관련된 심리적 손상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는 '보호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남기철의 연구(1998)에서 '적응적 유연성 개념(resilience)'을 활용한 연구와 유사하게 사회구조적 원인과 개인적 특성요인이 만성적 노숙의 '위험요소'로 사회적 지

지는 '보호요소'로 지적되며 사회적 지지는 만성적 노숙으로의 위험성을 경감시킨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결과는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인구층에 대한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부적 관계를 가진다고 즉, 사회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이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Schutt 등(1994)과 Gory의 연구(1990)가 미국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Gory 등(1990)의 연구에서는 노숙인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충격으로서의 디스트레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독립적 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일반인들에게서는 부정적 사건의 우울영향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지만 노숙인에게서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역할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노숙인들이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부적 사건의 경우에 사회적 지지는 그 보호적 가치를 상실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근거로 노숙인의 경우에 사회적 지지는 일반인들의 보호요소로서의 기능과는 다른 양상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Gory는 이것이 소위 욕구위계설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저차원적인 욕구충족이 결핍된 노숙인들에게서는 고차원적 욕구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가 필수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양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Schutt 등(1994)은 Gory 등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독립적 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사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의 완충모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보스턴의 보호시설 3곳에서 218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CES-D(심리적 디스트레스), Veit and Ware의 Mental Health Index(자살관련 문항), Cohen and Syme의 ISEL(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각) 등의 척도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에 대해 완충효과(상호작용효과)는 가지지만 매개효과는 가지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노숙인들에

게서도 보호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Gory 등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들은 상호작용 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단지 자체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인구층 대상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숙인에게도 정서적 완충 작용으로서도 작용하여 부정적 사건의 파괴적인 정서적 영향을 줄이고, 디스트레스 자체의 파괴적 행동결과의 가능성도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숙인의 낮은 순위의 욕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지지라는 높은 순위의 욕구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다는 관점에 대한 지지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는 Snow and Anderson(1987)의 연구에서 노숙인의 자기 존중감이 이전단계의 심리적 혹은 안전욕구 충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지적과 동일한 결과이다.

3. 노숙인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고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노숙인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노숙인의 생활상의 위기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양상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취약성, 알코올 중독, 사회적 지지망의 결핍은 노숙인의 생활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작용한다. 이러한 노숙인의 제반 심리적 양상에 대해 단편적인 지적을 넘어서 총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각의 틀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노숙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 노숙의 만성화 과정을 강조하는 관점, 외상이론이나 학습된 무기력 개념을 활용해서 파악하는 관점⁶⁾ 등이다. 이 각각의 관점은 서로 다른 내용의 심리적 양상을 주장한다기 보다는 서로 중첩되면서 현상을 파악하는 시각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3-1. 노숙문제에 대한 원인론에 대한 고찰

노숙인의 심리사회적인 특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접근은 노숙의 원인에 대한 논의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숙인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서 노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다. 이 원인설명의 논의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맥락의 몇가지의 유

6) 이는 이론적 설명들을 포괄적이고 배타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관점들은 같은 수준의 설명이 아니고 각기 범주화의 차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두드러진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본고의 의도상 편의에 따라 소거한 방식일 뿐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주거의 불충분한 공급과 같은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설명이나, 혹은 정신질환, 가족사에서의 특성과 같은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의 요인들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결정적인 요소로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는 다른 측면의 원인을 부정한다기 보다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Wright(1998)는 노숙의 원인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하는 차이점에 따라 여러 이론적 입장들을 '선택에 의한 노숙론', '부적절한 서비스에 의한 손상론', '사회구조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은 워낙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원인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설명의 방식이 원인에 따라 노숙인을 분류하는 방식과 관련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탐색하는 방식,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원인요소들의 순서나 수준을 정리하여 통일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방식 등이 있다.

첫 번째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Leach(1979)의 연구인데 여기서는 노숙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것에 있는 노숙인은 '외생적' 노숙인, 개인적 결합에 있는 경우는 '내생적' 노숙인으로 분류하고 이 두 유형의 노숙인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위 '부랑인'과 'IMF형 실직노숙인'으로 노숙인 집단을 분류하고 이 양자의 차별성을 강조하던 것들도 이와 같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시각에서는 노숙의 원인요소가 여러 가지이기는 하지만 한 개인이 노숙인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는 주로 하나의 요인만이 관련되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서로 배타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두 번째의 방식은 노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다. Jackson(1998)은 이전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노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8가지의 요인으로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 가정폭력, 가족구성, 경제적 자원의 결핍, 사회복지 공공부조의 활용, 사회적 자원의 결핍, 적절한 주거지의 결핍을 들고 있다. Wright(1990)는 22가지의 노숙관련 원인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설명력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원우(1999)의 연구가 유사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누가 노숙인으로 전화되는가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직상태의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특성, 가족특성, 사회환경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개인 특성 중에서는 교육 정도와 구직방법, 실직 이전의 월평균 수입 요인이, 그리고 가족특성에서는 결혼 안정성, 주거 안정성 요인, 사회환경적 특성 중에서는 친척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 요인이 노숙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Shinn과 Weitzman(1990)은 노숙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 관점의 이해를 강조하면서 개인적 수준의 요인(individual-level factors),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 사회경제적 요인(socioeconomic factors)이라는 세가지의 수준에서 요인을 추출하고 이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노숙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다중적인 수준에서 노숙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요인들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작용하여 노숙으로 전화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숙이 한두가지의 요인보다는 다중적 수준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이러한 논의가 첫 번째 유형의 논의들과 차이가 나는 점은 한 개인이 노숙인이 되는 것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의 요인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점이다.

노숙현상의 가장 기저에는 물론 경제적 구조적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경제적 구조에 따른 빈곤화와 개인적인 취약요인은 개인·가족 수준에서의 위험 요인에 영향을 준다. 개인과 가족의 수준에서 빈곤과 실업은 경제적 능력의 상실 뿐만 아니라 실업자 개인(대개 남성 가구주)과 가족 성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며 가족역할의 급격한 변화, 신체적·심리적 건강의 훼손, 가족갈등과 해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성희, 1999). 그러나 빈곤과 실업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곧장 가족의 해체나 노숙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노숙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인과 가족의 위기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사회심리적 요인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정신질환, 가정 폭력과 약한 가족 응집력, 약물 중독 등이다(Wright, 1990; Proch & Taber, 1987).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의 위험성에 대항해서 노숙으로의 전화를 막는 '보호요소'가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사회적 지지망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본다면 사회적 지지망에서의 취약성은 노숙인으로서의 전화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숙의 원인에 관한 기존 연구의 논의들은 노숙인과 관련된 제반 심리사회적 특성을 보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노숙의 원인론과 관련하여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점이 있다.

첫째로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많은 측면에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복합적 양상이다⁷⁾. 따라서 노숙인이 가지는 특성은 누군가가 노숙인이 되도록 결정하는 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노숙생활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7) 한 예로 외국에서의 연구(Bhugura, 1996; Shinn & Weitzman, 1990; McChesney, 1995 등)는 일반적으로 노숙인들은 정신분열증과 인격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20%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Bhugura는 자신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노숙의 원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시에 노숙생활의 산물로도 보아야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점은 노숙은 고정불변의 종국적인 결과가 아니라 역동적인 생활과정의 한 국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Cohen(1994)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숙을 특성(traits)으로 보느냐 상태(state)로 보느냐하는 점이다. 즉, 노숙의 원인론은 노숙의 '특성' 측면에만 치중하여 심리사회적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만 노숙을 보게되고 이 시각은 노숙이 가지는 '상태'의 의미, 즉 변화하는 역동적 생활과정의 한 국면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내게 될 앞으로의 변화과정과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

노숙이 가지는 역동성과 변화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Piliavin 등(1996)은 노숙은 불변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에서의 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으로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역동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역동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숙으로 처음 진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숙에서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혹은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숙에서의 이탈과 재진입 과정에 대한 연구(1996)에서 사회적 연계단절, 인적 자본의 결핍, 개인적 장애, 문화적 적응의 요인이 노숙생활에서의 이탈을 막고 혹은 노숙으로 재진입하게 하는 변수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Wong 등(1997)은 노숙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가족이 노숙에서 이탈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 인구학적 배경요인(가족크기, 민족적 요소, 인종, 사회적 지지의 사용, 사회복지급부의 활용)과 노숙으로부터의 탈출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노숙을 떠나 획득하는 주거의 유형과 후속적인 주거의 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였고 이와 아울러 노숙의 이탈 가능성은 노숙기간과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숙을 특정한 몇몇 원인에 의한 정태적인 결과로 보기 보다는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특성론에만 치우

치기 쉬운 노숙관련 논의들에서 상대론의 시각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연구들은 주로 인구학적 요인이나 공식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요인과 노숙에서의 이탈 간의 관계만을 보고 있다. Piliavin의 경우도 가설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연계단절이나 문화적 적응이 노숙에서의 이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심리사회적 손상 부분이 노숙으로부터의 이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New York시의 보호시설 거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조사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해 주로 개인/가족의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련을 보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들이 가지는 심리사회적 측면의 요인들과 노숙생활상태의 역동적 이전에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3-2. 노숙의 만성화 모형

노숙인들의 노숙생활이 길어지고 노숙에 적응하게 되면 만성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고 재활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숙의 만성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어왔다. 만성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노숙생활의 만성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⁸⁾

우선 Weitzman 등(1990)은 보호시설에 입소하기까지의 과정과 만성적 노숙생활의 역기능성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들은 많은 노숙인들이 길거리 노숙기간을 거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보호시설 이

8) 과정설명보다는 만성화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Calsyn & Morse(1991)가 세인트루이스의 대규모 응급보호시설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인적자원, 사회적 소외, 정신질환, 스트레스적 생활사와의 관련을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용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을 세가지로 분류하여 역기능적인 문제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최근까지 자신의 주거지가 있었던 단기간의 노숙인으로 이를 단기 시나리오(short-term scenario)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한 때 자신의 고정적 주거가 있었으나 이를 상실한지 오래 되었고 여러 달 전부터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의탁하거나 길거리 노숙을 하다가 더 이상 의탁할 곳이 없어진 장기간의 불안정을 경험한 노숙인으로 이들을 장기 시나리오(long-term scenario)에 해당한다고 했다. 마지막 유형은 한번도 자신의 정규적인 주거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경우로 보았다. Weitzman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유형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으로 갈수록 보다 많은 문제와 역기능적인 만성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길거리 노숙의 기간이 길어지면 노숙인 보호시설 내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Hertzberg(1992)는 노숙의 '하강나선 모형'을 제시하며 노숙의 만성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최초 노숙생활에 접어들면서 기본적인 속식해결에 치중하며 일시적인 생활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지만 점차 자존감의 손상, 수치심과 죄책감, 소외와 우울증, 분노, 좌절, 음주와 공격성, 고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성화된다고 보았다. 노숙인은 이 과정의 나선곡선 상에 위치한다고 보고 그 위치를 저항자, 동요자, 순응자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⁹⁾

만성화 모형 관련 논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Bauman과 Grigsby(1988)의 연구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련성 속에서 노숙의 만성화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 노숙인이 되었으나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있으며 외향적인 경우(Type 1), 최근에 노숙인이

9) 하강나선에서는 만성화 곡선에서의 탈출고리 등을 아울러 그림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하강나선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ertzberg, Edwina L. (1992) "The Homeless in the United States: Condition, Typology and Interven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5, 149-61 참조.

되었으나 지지망을 상실하였고 내향적인 경우(Type 2), 노숙기간이 길어졌고 고립되어 있는 경우(Type 3 - The Isolated), 노숙기간이 길고 노숙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속해서 생활하는 경우(Type 4 - The Outsider)의 4가지 사례를 통해 만성화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한 사람이 노숙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선 상실의 단계(stage of loss)가 나타나며 3가지 단계의 상실(가족지지의 상실, 친구의 상실, 지역사회지지의 상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상실'을 거쳐 노숙생활에 접어들고 난 후 사회적 연계단절(Disaffiliation)의 과정이 뒤따른다. Type 2의 경우 다른 노숙인과 사귀기 어렵고 '외로움'의 경로를 밟게 된다. Type 1의 경우는 초기의 지지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다른 노숙인과 함께 하는 경로를 밟게 된다. 이 양자의 경우에 시간이 흐르면서 노숙이 만성화(entrenchment in homelessness) 되는 과정으로의 이동이 나타난다. 노숙으로의 이동압력을 반전시킬만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노숙인들은 점점 더 전통적인 관계와 제도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정이 없고 지역사회의 거주자들과 관계가 없어지면서 노숙인은 인습적인 방법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전통적인 역할과 주류 사회로부터 단절된다.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진전되면서 노숙인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주류 문화의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연계단절(disaffiliation)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잃게 된다. 이 과정은 길에서 외롭게 있거나(Type 3으로의 전화), 비전통적이지만 지지를 재획득하기위해 노숙인들과 연계되는(Type 4로의 전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최초 노숙이 어떤 형태이든지 길에서 충분한 시간을 지내게 되면, outsider나 Isolate의 형태로 만성화된다고 보았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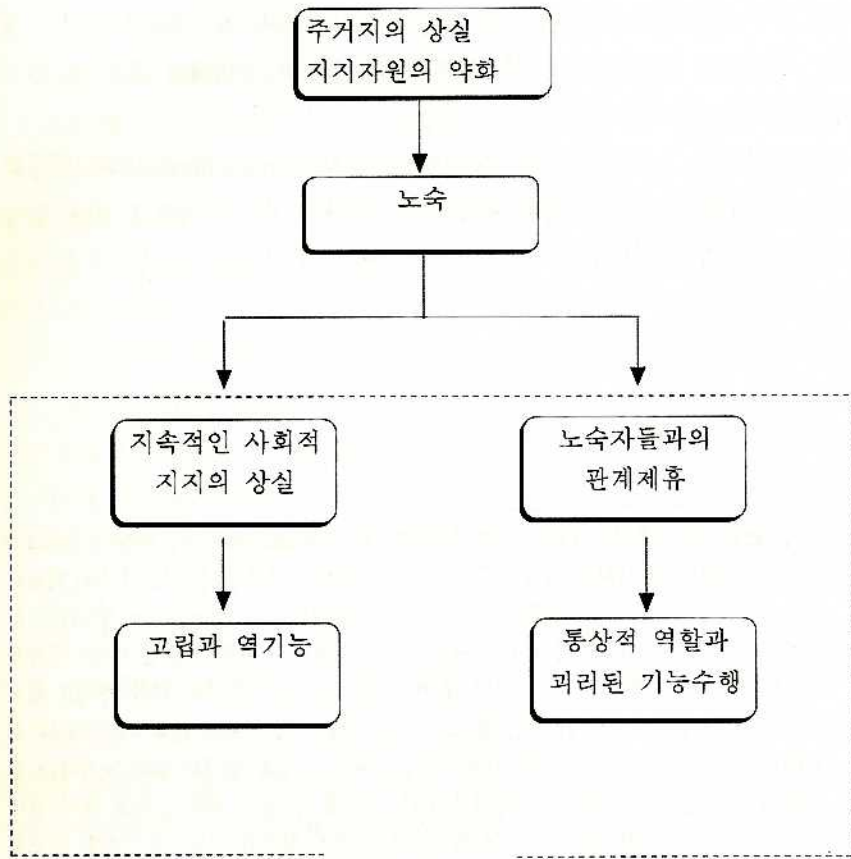
10) 만성화의 척도로 자신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노숙인들의 경향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노숙인들과의 연계형성이나 동일시, 만성적 노숙화로 인한 전통적 역할로부터의 사회적 연계단절(Social Disaffiliation) 과정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만성화

이들은 노숙인들에게 길거리에서의 관계제휴(street affiliation)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심리적 안녕에는 기여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길거리집단의 참여와 같은 노숙인 지지망에의 완전한 참여는 인습적인 역할로부터의 연계단절과 비전통적인 문화에의 제휴 및 만성화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노숙은 주요한 '상실'에서 '연계단절(disaffiliation)'과 '만성화(entrenchment)'로 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다른 형태의 삶의 형태로 만성화되어가는 과정인 셈이다.¹¹⁾

(entrenchment)의 특성은 다른 노숙인과의 연계형성(affiliation)과 동일시의 두가지인데 전자는 노숙인에게 사회적 지지의 증가를 주고, 후자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이해하는데 관련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준다. 사회적 비교론(Social Comparison Theory) 및 이것과 연계형성적 행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노숙인들이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교의 대상이 되는 타인들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문제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수준의 비교대상과의 정보 교환기회가 상실되어간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의 결과 노숙하는 친구의 수는 만성화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예측할 수 있는 바는 노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고, 길거리의 친구들이 많을수록 자신이 심각한 의료, 정신건강,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의 질이 풍족하다고 느낀다. 즉, 분석상에서 만성화를 노숙으로 보내는 시간과 친구의 수로 볼 때, 노숙인들은 만성화의 함수로 자신의 문제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11) Bauman과 Grigsby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실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outsider에게는 함께 노숙을 하는 cycle을 단절시키기 위해 소규모의 손상되지 않은 지지집단을 제공하는 것, 사례관리나 고용과 연계된 '함께 거주하는 사람기반'의 주거프로그램 등의 유용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림 1> Grigsby의 만성적 노숙에 대한 사회적 과정 모형

Grigsby 등(1990)은 이 모형을 다시 보다 간결하게 정제화시켜 노숙생활이 사회적 관계제휴(social affiliation)에서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림 1>과 같이 사회적 관계망의 측면에서 노숙의 장기화 만성화 과정에 관한 사회적 모형을 제시하였다.¹²⁾

즉, 복합적인 상황과 사건으로 인해 최초로 노숙을 하게된 노숙인들은 두가지 형태로 만성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노숙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상실하게 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연계단절(disaffiliation)이고, 두 번째는 주된 관계망이 노숙인들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관계제휴(re-affiliation)이다. 전자가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의 지속적인 상실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후자는 일반적인 사회관습과 동떨어진 '노숙문화'를 만들어내는 관계망에 의존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 Grigsby는 노숙이 가지는 사회적 연계단절 속성이 이치럼 두 가지 양상으로 만성적인 노숙문화(culture of chronic homelessness)를 만들어 노숙생활에 지속적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 Grigsby의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앞에서 '양날의 칼'이라는 말로 표현했듯이 노숙이 가져오는 만성화의 지표인 사회적 연계단절이 관계망이나 지지의 크기만의 문제(disaffiliation)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체 사회적 관계망에서 노숙인들이 차지하는 비중(re-affiliation)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노숙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만성적인 노숙문화

12) Grigsby는 노숙의 만성화과정 모형에서 사회적 연계단절로 인해 역기능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역의 관계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역기능성이 심해지면 정상적인 사회적 연계가 취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계단절과 다음에 제시되는 역기능성 요소의 선후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노숙이 가져오는 심리사회적 손상의 두가지 양상으로 고찰한다.

에의 적응성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다.

3-3. 노숙에 대한 외상(trauma)론

노숙인들이 가지는 정신건강에서의 취약성,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 알코올 중독 등의 성향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노숙의 원인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하고, 혹은 노숙의 만성화 과정과 관련되는 요소로 살펴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숙인들이 나타내는 독특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노숙이라는 외상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노숙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노숙의 위험요소로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왔지만, 반대로 노숙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손상에 대해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노숙은 개인 생활사의 역동적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손상을 가져오는 위험요소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

Goodman 등(1991)이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들은 노숙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틀로서 '심리적 외상(trauma)'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외상이론(trauma theory)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노숙의 영향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첫째, 노숙인이 되는 사건은 그 자체로서 심리적 외상의 증상을 가져온다. 둘째, 노숙인이 되는 그 자체로서 심리적 외상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노숙의 지속적인 조건은 대처능력을 손상시키고 외상의 증상에 빠뜨린다. 셋째, 노숙인이 되거나 혹은 지속적인 노숙의 조건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되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희생양이 되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의 증상을 심하게 증폭시킨다. 따라서 노숙인들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증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상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반응은 일시적인 혼란과 장애를 거

친 후에 정상적인 반응의 경우 분노나 공포, 좌절감 등의 호소(outcry), 사건에 대한 회상의 거부(denial), 무의식적인 사건에 대한 회상의 침입(intrusion), 사건의 실제에 대한 직면과 진행(working through), 종료(completion)라는 국면을 지나 일상적인 평정을 찾는다. 그러나 병리적인 반응의 경우 이 각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압도되거나 공황상태에 빠지고 지속적으로 사건에 대한 회상과 재경험에 시달리며 신체형 장애나 인성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Horowitz, 1993).

그러나 잠재적인 외상사건에 대한 반응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건,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양상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노숙은 일반적인 외상사건들과는 달리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위기사건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노숙인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우울, 불안, 신체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노숙이라는 외상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숙생활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연계가 단절되는 것, 혹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심리적 외상사건의 전형적인 증상이 된다. 노숙인들은 노숙생활을 하게되면서 사회적 지지망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스스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실제의 사회적 관계망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립과 불신의 심리적 연계단절감을 가지게 된다. 노숙인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상실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게 되면 관습적인 사회적 의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 사회적 연계단절은 심한 심리사회적 손상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Taylor, Peplau, & Sears, 1997).

노숙의 특성을 외상으로서 설명하는 관점은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Smith(1991)는 세인트 루이스의 300명의 무작위로 추출된 노숙인들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남을 밝히고

이 증상은 노숙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연계단절(social disaffiliation)과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는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Goodman, 1991에서 재인용). 학습된 무기력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건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상실하게 되어, 뒤이어 생활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동성과 무력감에 빠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부정적인 상황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이 상황이 영구적이고, 이 상황은 특정한 요인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때, 학습된 무기력이 만연된 것이다(Garber & Seligman, 1980). 연구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내는 현상으로 자기 능력(competency)의 상실감, 외적 통제소(external locus of control), 우울, 알코올이나 약물에의 의존성, 수동성과 변화에 대한 의욕의 상실 등을 들고 있다 (Goodman 등, 1991).

학습된 무기력의 이와 같은 제반 측면들은 노숙인의 상황에서도 유사하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력을 상실하는 노숙의 경험을 통해서 수동성과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외상 양상으로서 학습된 무기력은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의 상실, 외적 통제소, 정서적 우울, 알코올 및 약물 의존, 노숙생활에의 만성적 적응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노숙인들이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성에 관한 조사연구 - 우울의 정도(Breakey 등, 1989 ; Gory 등., 1990), 개인적 통제 상실감(Kozol, 1988), 일반적인 수동성에 대한 조사결과(Flannery, 1987) 및 2장 1절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 - 를 통해 노숙생활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노숙인은 노숙생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의 문제,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사회적 관계망의 결여 등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취약성의 양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2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심리사회적 취약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노숙의 원인론에 대해 살펴보았고, 노숙의 만성화 모형, 노숙의 외상론과 학습된 무기력 개념의 시각 등 이론적 설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고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발견이나 주장과 같은 목적보다는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해 소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설명 중에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비판하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취약성은 노숙생활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직업이 없고, 빈곤하고, 거주지가 없다는 것만이 노숙생활이 아니라 이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심리사회적 손상에 대해 유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심리사회적 손상은 노숙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만성화 과정의 양상, 그리고 노숙생활의 파괴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접근이 없이는 어떠한 경제적, 정책적 노력도 노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노숙인 정책도 재활중심의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나 관심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살펴보았던 논의들 속에서 몇가지 쟁점이나 함의가 도출될 수 있다. 예컨대 노숙인은 노숙의 원인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가? 아니면 유사한 생활의 전이과정의 연장선 상에 놓여있는 것인가? 노숙의 원인에 대한 접근이 노숙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노숙인들에게 자신들만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노숙에서의 이탈에 도움이 되는가? 노숙인

은 특성(traits)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상태(state)인가? 노숙과 심리적 취약성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주거서비스가 우선인가? 아니면 치료가 우선인가? 등의 크고 작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절한 실천을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2000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200개에 달하는 노숙인 보호시설(쉼터, 희망의 집)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관련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본격적인 노숙인대책사업이 시작된지 2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획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이 바로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손상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현 (1998). "TMF사태와 홈리스 대책". 「홈리스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남기철 (1998). "노숙자 문제의 현황과 시각".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가을호.
-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1998). 「노숙자 건강실태 조사보고서」.
-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1998). 「노숙자의 원인과 양상」.
- 신원우 (1998). 「실직 건설일용노동자의 노숙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98). 「노숙자 건강실태 조사보고서」.
- 한국도시연구소 (1998). 「홈리스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도시노숙자 실태」.
- Baumann, D. & Grigsby, C. (1988), *From Research to Action*: Austin, Texas, Hogg Foundation for Mental Health.
- Bhugra, D. (1996). *Homelessness and Mental Heal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M. B. (1997). Overcoming Obstacles to Forming Empowerment Groups: A Consumer Advisory Board for Homeless Clients, *Social Work*, Vol 39., No.6., Nov.
- Cohen, S., & McKay, G. (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 J. E. Singer, & S.

- E. Taylor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Vol. 4, pp. 253-267. Hillsdale, NJ: Erlbaum.
- Dail, P. W. (1988). Unemployment and Family Stress. *Public Welfare*, winter.
- Gory, M. L., Ritchey F. J., & Mullis, J. (1990). Depression among the Homel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31, 87-101
- Grigsby, C., Baumann, D., & Gregorich, S. E. (1990). Disaffiliation to Entrenchment; A Model for Understanding Homeless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6(4), 141-156.
- Hertzberg, Edwina L. (1992). The Homeless in the United States: Condition, Typology and Interven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5, 149-61
- Jackson-Wilson, A. G. & Borgers, S. B. (1993). Disaffiliation Revisited: A Comparison of Homeless and Nonhomeless Women's Perceptions of Family of Origin and Social Supports, *Sex Roles*, Vol. 28, 1993.
- James, F. J. (1992). New Methods for Measuring Homelessness and the Population at Risks, *Social Work and Research Abstracts*, Vol. 28, No. 2
- Jencks, C. (1994). *The Homele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Leach, J. (1979) Providing for the Destitute, in J. K. Wing & R. Olsen(eds.) (1979). *Community Care of the Mentally Disabled*, pp.90-105. Oxford University Press.
- McCarty, D., Argeriou, M., Huebner, R. B., & Lubran, B. (1991). *Alcoholism, Drug Abuse, and the Homeless*. *American*

- Psychologist*, 46(11), 1139-1148.
- McChesney K. Y. (1995),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on Contemporary Urban Homeless Families, *Social Service Review*, 69, September, 429-460
- McNaught, A., & Bhugra, D. (1996). Models of homelessness. In D. Bhugra(Ed.), *Homelessness and Mental Health* (pp. 26-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NCH Fact Sheet*, <http://nch.ari.net>.
- Piliavin, I., Sosin, M., Westerfelt, A. H., & Matsueda, R. L. (1993). The Duration of Homeless Careers: An Exploratory Study. *Social Service Review*, 67(4), 576-598.
- Piliavin, I., Wright, B. R. E., Mare, R. D. & Westerfelt, A. H. (1996). Exits From and Returns to Homeless, *Social Service Review*, 70, March, 33-57.
- Proch, K. & Taber, M. A. (1987), Helping the Homeless, *Public Welfare*, Spring.
- Rook, K. S. (1984). Promoting social bonding: Strategies for helping the lonely and socially isolated. *American Psychologist*, 39, 1389-1407.
- Rook, K., Dooley, D., & Catalano, R. (1991). Stress transmission: The effects of husbands' job stressors on the emotional health of their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65-177.
- Schutt, Russell K., Meschebe, Tatjana, & Rierdan, Jill. (1994). Distress, Suicidal Thought,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5, No. 24
- Shinn, M. & Weitzman, B. C., Research on Homeless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6, No. 4, 1990.

Shinn, M., Knickman, J. R., & Weitzman, B. C. (1991). Social Relationships and Vulnerability to Becoming Homeless Among Poor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6(11), 1180-1187.

Weitzman, B. C., Knickman, J. R., & Shinn, M. (1990). Pathways to Homelessness Among New York City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6(4), 125-140.

Wong, Y. I. & Piliavin, I. (1997). A dynamic analysis of homeless-domicile transitions. *Social Problems*, 44(3), 408-424.

Wood, D., Valdez, R. B., Hayashi, T. & Shen, A. (1990). Homeless and Housed Families in Los Angeles: A Study Comparing Demographic, Economic, and Family Function Characteristic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0(9), 1049-1052.

Wright, J. D. (1990). Poor People, Poor Health: The Health Status of Homeles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6, No. 4, 49-64

Wright, J. D. et al. (1998). *Beside the Golden Door*, New York : Aldine De Gruyter.

상실의 관점에서 본 홈리스문제

김 유 경¹⁾

1. 서론

20세기가 끝나기 직전 우리 사회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빈곤문화가 출현하였다. 2-3년 전처럼 쉽게 “거지”나 “부랑인”으로 치부할 수 없는 비교적 건강한 성인 남성들이 대규모 거리로 쏟아져나온 것이다. 짧은 시간안에 대도시 역주변과 인근공원에 소위 “실직노숙인”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 남성뿐 아니라 여성, 그리고 가족단위에 이르기까지 거리에서 노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예전 같으면 남의 나라 문제처럼 여겼을 “홈리스” 관련이슈가 각계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1998년 초부터 정부는 노숙문제를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생긴 일시적인 문제라고 여기며 대대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대도시노숙자특별보호사업」, 「노숙자집중밀착상담」, 「노숙자다시서기프로그램」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쉼터를 확충하고, 거리현장상담을 실시하고, 한시적이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주력했다. 일자리만 주어진다면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1999년까지도 재취업을 중심으로 한 자활지원노력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1)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연구교육 과장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주와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자활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대두된다. 궁극적인 자활에 장애로 작용하는 의지나 심리, 그리고 신체조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취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치료와 심리재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1999년 말부터 각 쉼터단위에서는 치료 및 심리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정부의 공식적 지원하에 실천하기에 이른다.

여전히 취업과 교육 그리고 다양한 심리재활 프로그램들이 강조되고 있는 2000년 초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노숙인복지의 제도화와 노숙인특성에 입각한 쉼터유형화의 이슈이다. 즉, 임기응변식으로 실시되어왔던 기존 지원체계를 장기적 전망속에서 재구성하고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에 입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여하튼, 6·25 전란 이후 '전례없는 대규모 노숙사태'라는 갑작스런 환란에 민·관·학 공동노력으로 심각한 고비는 넘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히 불끄기에 바빠 깊이있게 논의해야 할 것들을 쉽게 지나친 면도 없지 않다. 그 중에서도 본 글은 급한 김에 심각히 고려하지 못했던 원초적인 물음, 즉 집을 잃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홈리스라는 용어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공통된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쪽방과 같은 불안정주거지 이용자들을 노숙인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1년이상 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노숙인이라는 호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현재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과, 과거에 길거리에서 잠을 해결하다가 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노숙을 한 적은 없지만 노숙위기에 처해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노숙인쉼터를 이용하다가 간벌사업에 참

여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노숙인이라 칭하는 것이 합당한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의 상황”이나 “현재”의 주거해결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노숙인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이는 정책상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의거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우리 나라의 경우는 현재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노숙자”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 뿐 아니라 표적대상층의 편협함때문이다. 물론 원론적 의미에서 홈리스는 사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무대가 거리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대상자로서의 홈리스는 홈리스를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망에 속해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따라서 노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대상자일 수는 있으나, 정책대상자 혹은 연구대상자로서의 홈리스는 주로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즉, ‘노숙’이라 함은 의식주라는 기본생활을 거리에서 해결하는 상태를 말하지만, 숙식을 해결하는 주된 장소나 빈도 그리고 시간적 개념들과는 별개로 노숙인 범주를 규정하는 정책적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홈리스문제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문제의 속성이나 의미에 대한 분석은 원인에 대한 논의만큼 활발하진 않은 것 같다. 주로 정책대상자의 범위를 합의하기 위해 몇 줄짜리 공식적 개념정의를 시도했을 뿐이다.

세인트루이스대학의 Morse(1998)는 홈리스문제를 상실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는 상실과 관련된 측면을 인생초기부터 경험한 발달과정상의 상실,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들, 홈리스문제와 동시에 생겨나는 혹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해왔던 조건들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985년 세인트루이스의 성인 쉼터 입소자 248명을 대상으로 Morse가 동료들과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홈리

스로 전락하기 전 이미 그들은 일반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위기와 상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자원을 소멸시키게 되며 집의 상실(loss of home) 이전에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남기게 된다.

본 글에서도 역시 홈리스문제를 “집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거리노숙이라는 현상 자체보다 더 근본적 상황을 분석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글은 ‘노숙’이라는 용어 대신 ‘홈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물론 보다 적절한 용어에 대한 고민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놓고 말이다.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잃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홈리스들은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2. 집의 의미와 상실

집은 살아가는 데 너무 기본적이고 익숙한 것이라 그 의미를 따지는 게 새삼스러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의미를 논하는 까닭은 그렇게 기본적인 집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문제는 ‘집이 없다’는 것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집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다.

집은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주거공간 이외에도 휴식처, 가정, 가족들, 고향 등의 이미지로 떠오른다. 현재의 주거공간이 답답하고 불편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집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곤 한다.

홈리스는 말 그대로 집(home)을 잃은 상태 혹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홈리스에 대한 통일된 개념정의가 어려운 것은 “집”의 범위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집(home)이란 사람이 들어가 잘 수 있고, 낮선 이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합의되고 있다(도시연구소, 1998). 물리적 공간에 대한 사적 사용·통제권과 아울러 공간으로서의 집을 강조하고 있다.

Somerville(1992)은 홈리스문제가 주거공간의 상실(rootlessness)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정적 기반의 상실(rootlessness)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전자의 경우, 집을 물리적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기본바탕으로서 집을 상징하고 있다. 물리적 차원으로서의 집은 추위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기본욕구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처²⁾의 기능을 담당한다. 안정적 기반으로서의 집은 개개인에게 친숙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차원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2) 영어로는 shelter, refuge, house 등으로 표현된다.

개별적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각 차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집의 물리적 의미와 상실

주거는 비나 이슬을 막는다든지 추위와 더위를 조절한다든지 혹은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등의 역할을 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편안하게 잠을 자는 등 인간의 기본적·생리적 행위를 해결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식사를 즐기면서 가족끼리 단란함을 이루는 곳인 한편 이와 대칭적으로 사색이나 독서를 하는 개인적 공간이기도 하다. 전자는 사회적인 생활기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데 비해 후자는 보다 개성적인 부분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집단이 사회적, 경제적 최소단위로서 출발한 이래, 주거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가정생활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보다 원활히 적용하고 처리할 수 있게 했는지에 있다.

인간의 지체가 발달하고 주거가 사회 속의 주거로 정착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더욱 새로운 요구를 일으키게 된다. 주거는 인간생활과 활동의 거점이다. 생리적·정신적 피로를 풀고, 활동의 원천이 되는 심신의 활력을 만들어 내는 곳이므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주생활은 주택구조체에 의하여 구획되는 물리적 공간을 생활공간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 생활행위와 물리적인 공간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이 때에야 주생활은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지 않으면 주생활은 불편함으로 나타난다. 주거는 어디까지나 유동적이라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가족 내부의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나 타동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연속적인 물리적 환경 속에서 유동적인 생활이 어떻게 적응되어 가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물리적 차원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침실이나 서재로 대표되는 '개인의 사적 공간', 둘째, 욕실이나 화장실로 대표되는 '생리위생 공간', 셋째, 거실이나 식사공간 등 '가족의 사회적 공간', 마지막으로 부엌이나 세탁실 등의 '가사노동 공간'이 그것이다. 구분된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은 개인의 취미나 기호,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 이상으로,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며, 기본적 자기관리를 가능케 한다. 또한 생활 유지와 생존을 위한 1차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임과 동시에 가장 원초적이고 가까운 관계가 형성·유지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주거는 그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생활기능), 생활을 가능케 하고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구조와 환경적 조건을 갖추게 된다(공간 및 구성기능). 뿐만 아니라 주거의 형태나 색채 및 조형적 조건들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정서나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시각기능). 조성기와 김일신(1990)은 주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①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shelter, safety).
- ②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health, charming).
- ③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휴양과 위락이 얻어져야 한다 (relaxation).
- ④ 능률적인 가사처리가 되어야 한다(efficiency).
- ⑤ 단란함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recreation과 privacy).
- ⑥ 개개인의 인격형성에 올바르게 기여해야 한다(personality). 사람은 자신

이 살 집을 형성하지만 그 다음엔 집이 사람을 형성한다는 말이 있다.
물리적 주거환경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말이다.

⑦ 경제적인 주택이어야 한다(cheap).

이런 점에서 볼 때, 집이 없다는 것은 주거의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 ① 추위와 더위, 갈취와 폭력, 기타 위협적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의 결여
- ② 건강에 위대한 비위생적 상황으로의 노출
- ③ 편안히 피로를 풀며 쉴 수 있는 안정적 휴식공간의 부재
- ④ 취사 등 가사처리공간의 열악
- ⑤ 외부 다른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단란한 공간을 보내기가 어려움
- ⑥ 작은 영역이라도 개인 사생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만한 공간이 없음
- ⑦ 환경의 영향으로 개인의 인성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소지가 다분함

따라서 홈리스를 위한 쉼터 혹은 주거를 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주거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설계와 공간구성에 보다 유념해야 한다. 최소한이나마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의 영역을 구분하여 사회성과 개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주거공간은 그 자체로 인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은 주거공간이 사람을 더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주거공간 자체로 황폐해진 사람의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홈리스의 자활과 재활

을 위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던 '환경조성의 문제'를 좀더 숙고해볼 일이다.

2-2. 집의 심리정서적 의미와 상실

Wardhaugh(1999)에 의하면 집은 여행이 끝난 후 '쉼'의 공간이며, 공적 세계로부터의 사적 은신처이며, 낮설고 불안한 세상속의 친근하고 안전한 공간이다. 그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대비시켜 집의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집이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집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집에 대한 그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집의 상실이란 쉼없는 여행, 자신만의 공간 없이 공적 세계에 방치되어 있는 삶, 늘 낮설고 불안한 세상살이 등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어떤 이들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속해 있어도 도무지 집에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 집으로서의 아무 의미도 주지 않는 물리적 공간은 그야말로 구속일뿐이라고 여기며 집을 뛰쳐나가 비로소 문자 그대로 홈리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집이라는 공간이 오히려 더 위태롭고 쓸쓸하다. 이렇듯 물리적 공간이 진정으로 사람과 조화되지 않으면 물리적 공간을 잃거나 떠나오기 전에 이미 집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이 자기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실존적·심리적 의미의 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Murphy(1999)는 홈리스문제를 '장소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는 공간(space)과 장소(place)를 구별한다. 그에 의하면 장소란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 그는 개인이 '자기다움(personhood)'을 만들어내고 가꾸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장소라고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떠올릴 때 함께 연상될 수 있고, 그 안에 그의 세상과 삶과 관계가 녹

아들어있는 곳이 바로 장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의 상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실존적·심리적 상실을 의미한다.

집의 물리적 측면에는 집의 스타일, 규모, 기능, 공간배열 및 특성, 거주기간, 주변공간배열, 채광, 이용편의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요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가며 집과 맺게되는 정서적 관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나름의 기호와 개성, 혹은 활동내용이나 시간대 등에 따라 편안해 하는 스타일이나 색상, 규모, 근린환경, 채광정도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이 주는 의미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공간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집은 Murphy의 주장처럼 의미부여가 된 장소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물리적 공간과 맺는 이러한 관계는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은 보다 개성화된다.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해가거나 자기 나름의 질서와 의미를 환경에 창조하면서 환경을 자기화(personalize)하고 인간화(humanize)한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자기 집에 쏟는 관심이 각별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자기 소유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그 공간에 자기 이미지가 투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으로서의 집은 아기를 낳고 먹고 자는 등의 생존욕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가치관, 관습, 종교, 분위기 등과 관계한다. 따라서 집은 단순 은신처(shelter)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환경을 통해 개인이 중요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을 구현하는 일종의 세계인 것이다 (Csikszentmihalyi & Rochberg-Halton, 1981). 집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강조한 Csikszentmihalyi와 마찬가지로 Somerville(1992) 역시 집에 깃든 정서적 의미를 강조한다. 즉, "집"이라는 단

어를 통해 사람들은 흔히 유년시절, 자기존재의 근원, 보다 자유로운 자기 영역에 대한 은근한 비밀스러움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누군가 "난 집이 없어요"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난 살 집(건물)이 없어요"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제가 사는 집은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아요."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집의 물리적 의미와 심리적 의미간의 차이를 확인시켜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Watson과 Austerberry(1986)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집(home)이 있는지'와 '자신이 홈리스인지'를 물었다. '집이 없으면 당연히 홈리스다'라는 단순한 가정과는 달리, 집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 중 30%는 자신이 홈리스가 아니라고 응답한 반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 중 32%는 자신을 홈리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Wardhaugh(1999)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의 연구에서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만 "이 곳에 내 집"이라는 느낌을 전혀 갖을 수 없다고 말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집에 있는 홈리스"), 반대로 홈리스쉼터에서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홈리스라고 여기지 않는 여성들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활을 영위하는 물리적 공간이 어디인가와 상관없이 그곳에 얽힌 갖가지 경험들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와 감정들이 결집하여 집의 의미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공간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관계 혹은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반경험들이 편안하거나 즐겁지 않을 때, 그 곳은 집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진정으로 집에 있다는 느낌"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종종 종교와 같은 형태로 대체되기도 하고, 가출 등 일탈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집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은 곧 자기정체감과도 연관된다. 집은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 모두의 근원이 된다(Wardhaugh, 1999). 집은 인간의 존재 및 의미, 자아정체감의 원천이며 동시에 사회질서의 본질적인 기반이 된다

(Dovey, 1985; Wardhaugh, 1999). 최소한의 의미로 보자면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폭넓게 보자면 집은 곧 존재상태를 말한다(Wardhaugh, 1999).

집의 중요성은 사람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과 상호작용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집이 허용해주는 사생활(privacy)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목표들을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두려움없이 일구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집은 자아를 규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은신처이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상징적 환경이 되는 것이다(Csikszentmihalyi & Rochberg-Halton, 1981: pp.144).

특히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개인적인 자아정체감의 근원으로 집을 강조한다. 물리적 주택이란 신체의 상징적 표상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Cooper Marcus(1995)를 들 수 있다. 칼 융과 맥락학을 같이하는 그는 모든 형태의 주거에 사는 사람들과 집중적 인터뷰를 해서 얻어진 집의 의미 및 집에 대해 창출되는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그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루게 되고 어떻게 그것이 유년시절의 추억들과 성인기 주거선정방식, 집과의 유대정도, 집과 자아와의 관계와 연결되는지 다룬다.

우리가 집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자는 주택이나 건물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함축한다. 집에는 이웃(neighborhood) 역시 포함된다. 그리고 만약 집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면, 주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넉넉한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다른 생물들처럼, 인간은 단지 먹고 잘 은신처뿐 아니라 “집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생태학적인 세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Cooper Marcus, 1995).

한편, 집은 개인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이다. Rex와 Moore (Wardhaugh, 1999에서 재인용)는 어떤 특정 사회내에서 존속되는 집의 서로 다른 의미와 인식 등에 대해 민족성, 계층, 혹은 문화 등을 대입시켜 연구한다. 그들은 사회적 세계의 고정되고 뿌리깊은 영역들은 필연적으로 집에 대한 개인의 초기 경험으로부터 떠오른다고 가정한다. 집을 통해 사람은 공간이 연결되어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갖게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Dovey(1985)는 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home)은 주택(house) 안의 하나의 방일 수 있다. 그 주택은 이웃 사회안에 있고, 이웃사회는 도시 안에 있고, 도시는 국가 안에 존재한다. 각각의 수준에서 집은 두 개의 경험의 극(공간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큰 차원의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하고 깊이있게 의미를 얻게 된다.... 집은 불안한 세계안에 있는 안전한 공간이며, 믿을 수 없는 세상속의 확실한 공간이며, 낯선 세상 속의 친숙한 공간이며, 세속적인 세상속의 경건한 공간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규칙에 지배되는 갈수록 타율적이어가는 세상속에 자율적이고 자기관리가 가능한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집의 상실은 對사회적 의미와 상호작용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 Burkum(1999)은 집의 상실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의 곧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개인이 사회내에 존재하는 한 상호관계, 소속감, 그리고 멤버쉽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내에서 멤버쉽을 가지지 못한 상태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한계상황 즉, 중심에 합류하지 못하고 사회외곽

을 맴도는 상태를 말할 수도 있겠다. Wright 등(1998)은 홈리스문제를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과정(process of marginalization)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을 떠나 집의 인지심리적 측면만을 극단으로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일례로 Gurney(1990)는 집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홈리스라도 집은 있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 대해 집이 있고 없고를 논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거리를, 쪽방을, 여인숙이나 만화방 등을 “내 집”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인 소유공간으로서의 집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집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기보다 감정과 경험의 대상으로서, 나아가 인지와 지적인 구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Gurney 이외에도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 실존주의 철학자들 역시 물리적 공간과는 별개의 홈리스상태에 관심을 둔다. 하이데거는 홈리스상태를 본래적 존재와 비본래적 존재 사이의 분기점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느낌은 비본래적 존재에 의한 거짓된 확신일 뿐이라고 말한다. 니체 역시 집으로의 복귀와 정처없는(without a fixed abode) 방향은 함께 동반되며 집과 집없음이란 결국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집과의 심리적 관계 혹은 집의 의미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Csikszentmihalyi 등(1981)은 남성의 경우 주택에 대한 물리적 투자를 통해 소유자로서의 자아(the self of the adult male owner)와 집(the home)간의 견고한 연대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남성들은 집과 두 가지 차원으로 연결된다. 첫 번째 차원은 사회적으로 전형화된 남성적 자아상(the male self)과 관련된다. 안정적 직장과 더불어 중년기 남성들에게 부과되

는 대표적인 인생과업은 바로 안정적인 가정(home)의 형성이다(대니얼 레빈슨, 1978; 김애순 역, 1998). 안정적인 집과 직업의 성취는 남성들의 사회적 자아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이를 바탕으로 남성들의 사회생활이 균형있게 전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활동차원과 다른 두 번째 차원은 사랑, 행복, 따뜻함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측면들은 그것을 상실했을 때 더 강하게 와닿곤 한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주거공간을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장소로 보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한다. 여성들이 집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 이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조화롭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대체로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녀에 비해 집의 정서적 상태(the emotional state of the home)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집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요인들을 포함해 매우 다양하다. Watson과 Austerberry(1986)은 집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쾌적한 물질적 조건과 기준, 정서적·신체적 안녕, 건강한 사회관계, 통제와 사생활, 단순한 생활과 수면공간 등의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홈리스상태란 그와 반대로 물질적 조건, 정서 및 신체적 안녕, 사회관계, 통제와 사생활 등이 부재하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2.3. 집의 경제적 의미와 상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집은 경제적 독립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현대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정치적 힘은 경제력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Arnold(1998)에 의하면 집은 경제적 독립성의 상징물로 기능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분가의 형태로 상징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는 이렇듯 집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독립성을 잃은 홈리스들이 말로는 동등한 시민이라 불릴지 모르지만, 경제적 의존관계 속에서 사회적 '타자'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실질적 시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Abbarno(1999)는 현대 도시는 소유권(ownership)이란 용어를 통해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홈리스들이 바라는 것을 '소유(having)'란 말로 축약해 표현하고 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소유'에는 집을 잃음으로써 소유할 수 없게 된 유형적·무형적인 것들이 총체적으로 내포된다.

현대사회에서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 권한과 의무는 집 혹은 주소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집은 대다수 사람에게 임차를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대상으로 그 '소유'라는 개념도 임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권 확보 및 유지에 대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다면 집에 대한 한시적 소유권도 끝난다는 것이다. 집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불능력조차 없는 상태 혹은 지불능력을 가지고도 공식적으로 이를 표시할 수 없어 포기하는 상태가 바로 홈리스의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집은 경제적 능력과 재산을 의미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재화들이 소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도 증식과 감축이 가능하다. 다 써 없어질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 집은 최후 보루로서의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다 잃었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절박한 빈곤 앞에서 이것저것 처분하게 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대부분 사람들에게 집은, 아무리 없어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최저선이 아닐까?

다른 한편으로 집은 재산의 보호와 관리라는 차원에서 의미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사적 공간으로서의 집은 도둑맞을 위협이나 불안감에 대해 안전망 구실을 한다. 자기소유에 대해 울타리역할을 하는 집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소유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제 막 노숙을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곳에 가방을 싸안고 혼자 앉아 밤새 한잠 못 자고 뜯눈으로 지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옷 몇 벌과 신발 한 켤레 혹은 밥 한끼 식사할 만큼밖에 안 되는 돈이라 해도 더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잃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기 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없어 분실의 위험을 온 몸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서다. 집마저 잃고 거리로 나왔을 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기소유를 잃는다는 것은 곧 절망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시작한 지 한달 안에 주민등록증을 비롯하여 많은 것을 분실하고 도난당하는 경험을 한다. 타인의 접근을 자기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영역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집은 노동력을 재충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들에게 있어 일반적인 생활흐름은 집과 근로현장간 주기적 왕래로 축약된다. 근로현장은 생계유지를 위한 별이를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장이라고 한다면, 집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이다.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에너지의 원활한 충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집을 잃었다는 것은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얻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물론 집을 상실한 사람은 이미 일도 상실한 경우가 많다. 휴식기를 거쳐 다시 일을 구한 사람들 혹은 밤엔 노숙하면서 주간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비해 '버티기가' 힘들다. 어떤 이들은 이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몸이 망가져버렸다는 것을 오랜 실직과 노숙 기간 후 연장을 다시 잡고서야 깨닫기도 한다.

굳이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일의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생활하며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공급이 필요하다. 노숙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한다.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처음의 힘, 처음의 의지, 처음의 젊음이

급격히 소멸해가는 것을 많이 본다. 노숙의 장기화는 에너지의 소진 자체 뿐 아니라 소진에 무감각해지게 한다는 면에서도 그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집의 상실을 생활에너지의 충전소를 상실해간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집은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 자체를 유지·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소비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충전을 위한 '쉼'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아 집에 있어도 '쉼'보다는 근심과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다. 집에서의 경제적 갈등은 가족관계를 위협하고 경제적 문제와 관계악화가 맞물리는 경우 노숙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신원우, 1999; Elder et al, 1988; Elder et al, 1990; Voydanoff, 1990).

그런 점에서 보면 집은 소비의 장이기도 하고 생산과 노동의 장이기도 하다. 열차를 움직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료를 소비하는 것을 떠올려보자. 소비와 노동을 통한 에너지창출에 기반하여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기본적인 관리와 가사노동이 없으면 "쉼"을 위한 위생적이고 편안한 환경조성이 어렵다.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며 필요한 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공간이라면 편히 쉬기에도 적당치 않을테니 말이다.

따라서 경제적 의미에서 본 집의 상실은 소유 및 관리, 경제적 독립성, 재충전을 위한 소비와 노동의 자연스런 흐름들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많은 것을 잃고도 더 잃을 위험에 누구보다 많이 노출된 상태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방적 의존관계에 놓임으로 말미암아 경제사회적 장애자로 낙인화된다. 경제적 소외는 극단적 형태의 사회적 소외로 이어져 스스로 일어설 힘이 필요한데 자꾸만 그 힘을 소진할 뿐 재충전하기가 힘든 게 바로 홈리스상태인 것이다.

2-4. 집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상실

건축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라포포트는 주거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이규목 역, 1997). 그에 의하면 집은 단지 구조물이 아니고 복합적인 일련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하나의 제도이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적 현상으로 주거는 그것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은신처의 제공이 주택의 소극적 기능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목적은 한 인간의 생활에 가장 적합한 환경, 다시 말하면 공간의 사회적 단위를 창조하는 데 있다. 주택으로서 또한 인간의 요구로서 은신처가 갖는 비중을 부정할 순 없지만, 물리적 차원에서의 은신처 자체에 대한 본질적 필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티에라 델 푸에코(Tierra del Fuego)제도의 오나(Ona)족은 극한성기후대에 살고 건축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바람막이 정도의 주거형태를 유지할 뿐이다. 태즈메니아(Tasmania)의 원주민들 역시 한 냉기후 지역인데도 물리적인 집 없이 살아간다. 지역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무형의 주거까지 포함해서)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집'의 기준은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포포트는 동일한 조건과 능력이 주어지더라도 집의 형태를 결정하고 집이라는 공간과 자신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라고 말한다. 즉, 인간이 자신의 이상적인 생활에 관해 갖고 있는 비전을 집을 통해 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거를 통해 추구되는 환경은 종교적인 신념, 가족과 그 일가의 구성, 사회조직, 생계영위수단, 개인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여러 사회문화적인 힘들을 반영해준다.

집은 인간의 생활양식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속에는 모든 문화적,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측면이 다 포함된다. 우리가 행동하길 바라는 방식,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구의 개념과 활용방법, 이상적 관계나 개

인생활에 대한 이념들이 집 속에서 구현된다. 라포포트는 주거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생활양식을 기본적인 욕구들(난방, 생계를 꾸려가는 관습 등), 가족, 프라이버시, 사회적 접촉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집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가족역사가 담긴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식은 예로부터 가족을 둘러싸고 매우 중요시되어왔다. 출생과 혼인, 사망과 제사 등은 가계의 보존과 연대감형성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맥락만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일종의 '소유'개념과 태도에도 반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땅 한 평이나 집 한 채의 의미는 단순히 능력에 따라 팔고 사는 대상을 넘어 가족과 개인의 혼과 역사가 담겨 있는 대상으로 여겨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집이 없다는 것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집의 의미는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문화에 따라서는 有形의 집이 없더라도 집의 개념이 성립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연대감, 생활욕구와 우선순위, 관계, 이상, 사회질서 등 집과 연결된 무형의 개념들이 집을 구성하는 주요인들이 된다. 집의 가시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는 보호를 위한 물리적 필요와 소유가 우선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유형의 집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조차도 사회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홈리스문제의 속성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라포포트의 견해에 따르면 홈리스상대란 무형으로든 유형으로든 일반적으로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죽어도 내 한 몸 누일만한' 땅 한 평, 집 한 채, 방 한 칸에 대한 애착은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집은 성인남성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집이 없어 노숙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질

서에 일탈된 상태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사회에서의 노숙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 혹은 기후대의 그것과 분명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3. 결론

이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자기의 위치에 적응할 수 있는냐는 그들을 사회적 인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단 자기의 위치를 알고 난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진다.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통념이 주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집이 없다면, 당장 자신의 자리부터 막연해지니 대인관계의 거점도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집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홈리스상태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나아가 정치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들의 상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식주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거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개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 외에도 세상과 사회에 대한 연대, 생활에 대한 감각과 능력, 사회문화적 궤도 안으로의 합류, 일방적 의존관계의 탈피, 자아감과 개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것들을 채워주는 작업은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강화와 변형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한 개인을 아직 세상과 묶어주는 상징들, 각 개인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들, 그나마 그를 쉬게 하는 것들을 신중히 고려해 보는 것이 개입의 보다 수월한 출발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도시연구소 (1998). 「홈리스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신원우 (1999). 「실직 건설 일용 노동자의 노숙결정요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조성기·김일진 (1990). 「주거학」. 동명사.

Abbarno, J. M. (1999). Introduction. in G. J. M. Abbarno(ed). *The ethics of homelessness: philosophical perspectives*. Rodopi B.A. Amsterdam-Atlanta, GA.

Anold, K. R. (1998). *Homelessness, citizenship, and identity: political power, liberalism, capitalism*.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Burkum, K. (1999). Homelessness, virtue theory, and the creation of community. in G. J. M. Abbarno(ed). *The ethics of homelessness: philosophical perspectives*. Rodopi B.A. Amsterdam-Atlanta, GA.

Cooper Marcus, C. (1995). *House as a mirror of self: exploring the deeper meaning of home*. Conari Press.

Csikszentmihalyi, M. & Rochberg-Halton, E. (1981). *The meaning of things: domestic symbols and the se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vey, K. (1985). Home and homelessness. In I. Altman & C. M. Werner(eds.). *Home environment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Plenum Press.

Elder, G. 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25-45.
- Elder, G. H. et al.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August, 643-656
- Gurney, C. (1990). *The meaning of home in the decade of owner-occupation: towards an experiential perspective*. Working Paper 88. School of Advanced Urban Studies. University of Bristol.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김애순 역,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 Morse, G. A. (1998). Homelessness and loss: conceptual and research considerations, in J. H. Harvey(ed.), *Perspectives on loss: a sourcebook* Brunner/Mazel.
- Murphy, P. A. (1999). The rights of the homeless: an examination of the phenomenology of place. in G. J. M. Abbarno(ed.). *The ethics of homelessness: philosophical perspectives*. GA:Rodopi B.A. Amsterdam-Atlanta.
-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이규목 역(1997),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미술선서 47.
- Somerville, P. (1992). Homelessness and the Meaning of Home: Rooflessness or Rootless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4): 529-539.
- Voydanoff, P.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Nov., 1099-1115.

- Wardhaugh, J. (1999). The unaccommodated woman: home, homelessness and identity. *Sociological Review*, 47(1), pp. 91-109.
- Watson, S., & Austerberry, H. (1986). *Housing and homelessness: a feminist perspective*. London:Routledge and Kegan Paul
- Wright, J. D., Rubin, B. A., & Devine, J. A.(1998), *Beside the golden door*, New York: Aldine de Gruyter.

노숙인쉼터의 원조환경요소¹⁾에 관한 연구

김혜성²⁾

1. 서론

노숙인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거리나 주거공간이라 할 수 없는 곳을 이용하여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이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며, 따라서 노숙인 문제 해결은 쉼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은 전통적으로 존재해왔으나 급속한 양적 팽창과 더불어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 시기는 IMF 체제 이후이다. 따라서 노숙인 확장 현상은 경제난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숙원인이 단순히 실직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배경, 가정해체, 열악한 취업경력, 알코올 남용 등의 장기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1998). 즉 상당수의 노숙인이 동일한 생애주기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사회제도와 유리된 상태인 사회적 연계 단절(social disaffiliation)의 경험자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노숙인의 특성은 재노숙과 만성 노숙화의 높은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

1) 원조환경요소 : helping environment components

2)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다.

1998년 노숙인구가 확산되면서 쉼터확산이 말빠르게 이루어졌고 공공근로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노숙인의 숙식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해왔다. 이러한 대응은 노숙인 욕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거리 노숙이라는 노숙의 가장 위험한 형태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응급적이고 단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경기회복과 더불어 경제난과 더불어 발생한 노숙인의 일부는 사회로 재진입 하게 되었을 것이며,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주변적인 경력과 자원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노숙 인구 층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기존의 노숙 인구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일부가 노숙 인구에서 이탈되었다고 해서 노숙인 문제가 해결양상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도의 인적 자원을 요구하는 경쟁적인 고용 환경, 가족기능의 변화 및 해체와 더불어 노숙인 인구의 연령층 변화, 노숙발생 원인의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노숙인은 발생될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숙인 쉼터는 여전히 사회적 필요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쉼터는 생활의 보편적인 형태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므로,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셋팅에서 전문적인 활동은 자칫 일상 생활의 맥락 속에 파묻히게 되어 그 정체성과 효과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같은 어려움에 부가하여 쉼터 관련 인력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개입이나 실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아 보편적인 실천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로 쉼터 인력들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실천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교육이나 학문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천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

하거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 등의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환경의 변화'인데, 이중 인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은 일상생활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상 생활이 주로 진행되는 쉼터는 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역설적으로 볼 수 있다. 즉 낙인, 사회적 차별, 사생활 보장의 부재 등과 같은 쉼터가 갖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숙인과 같이 쉼터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 쉼터에서 진행되는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이용자들의 심리·사회적 손상을 회복시키는 원조환경(helping environment)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노숙인 쉼터를 숙식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해결의 장으로 주 기능을 부여했다면 이제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제시 단계에 이른 즈음에 있어 노숙인 쉼터의 역할을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손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원조환경(helping environment)으로서의 기능과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 아래 쉼터가 원조환경(helping environment)으로서 기능하려면 어떠한 요소와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컴퓨터가 노숙인을 위한 원조환경(helping environment)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컴퓨터 전문인력들의 이용자에 대한 기본철학이 중요하다. 미국의 보건복지부(DHHS)는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철학은 인간존엄(dignity)과 존중(respect)으로 제시하였다. 노숙생활은 자신의 존재가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노숙인의 진술(Larson, 1998)에서 볼 수 있듯이 노숙생활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엄(dignity)을 앗아가고 사회적 관계에서 존중(respect)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인 황폐함은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며 영속적인 자포자기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는 이러한 심리적인 외상(trauma)를 치유하고 재노숙 생활이나 만성적 노숙생활로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히 숙식 제공이 쾌적하고 적정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건강 및 심리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다양한 서비스가 노숙인의 욕구별로 제공된다고 해서 컴퓨터가 노숙인에게 원조환경(helping environment)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노숙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³⁾ 그러한 제한점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는 이용자의 특성이나 욕구에

3) 미국의 COA(Council On Accreditation, 이하 COA로 사용한다)의 노숙자 응급 컴퓨터 매뉴얼에서는 즉각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들의 대처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로의 재통합을 위한 계획과정을 지원하는 통합된 프로그램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OA 기준의 일부를 만족시키는 것도 있으나 지역사회 내로의 재통합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숙인 문제는 IMF와 함께 발생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이제 경제 회복과 더불어 노숙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당위성을 약화시키고 있어 컴퓨터의 역할부여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컴퓨터가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인간관계와 지지적인 경험(supportive experience)을 제공해야 하겠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 글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수준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각 컴퓨터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응용 및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2-1. 물리적 환경

Miller(1998)는 노숙인 문제를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연구한 Dardick와 Desjarlais의 저서를 통하여 노숙인이 경험하는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삶의 얼마나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 존엄, 자유, 적대적인 것에 대응하는 능력 등은 단순히 심리내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기인식, 주도성, 사회적 상호작용은 거주하는 환경과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은 외형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외형적인 요소가 경험 당사자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므로 물리적 환경이 노숙인에게 원조환경(helping environment)으로서의 역할 담당은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숙인 중 다수가 점진적으로 사회적 연계망에서 고립되어 온 경우이므로 이들이 노숙생활 전에 경험해왔던 주거의 물리적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으로서 컴퓨터는 다른 노숙인의 위협이나 물건분실, 소음 그리고 좁은 주거공간⁴⁾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

제한성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Manaha 등(1980)은 수용시설의 물리적 환경의 주요 문제로 소음과 좁은 주거공간을 지적하였다. 이 두가지 변인은 정신건강이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상대적으로 청결, 안정,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안락함 등이 보장되는 환경이다.

이같은 물리적 측면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숙인 중 일부는 쉼터를 '집(home)'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 시설병(shelterization)이라고 칭하는 연구자도 있다(Fantasia 외, 1994). 쉼터의 물리적 환경의 바람직한 조건은 쉼터에 대한 수동적인 적응을 불러올 수 있다.

쉼터 환경에 대한 이같은 적응은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과 부합된 적응양상은 아니나, 노숙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킨다는 면에서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즉 성장과정이나 노숙생활 전에 경험하였던 물리적 주거환경보다 향상된 주거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이후 사회의 판례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아닌 곳을 이용하여 열악한 노숙생활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방지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쉼터에 대한 수동적인 적응이든 사회복지로의 긍정적인 적응이든 쉼터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환경은 노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같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원조환경으로서의 쉼터의 물리적 환경은 '일반적 주거환경', '개인 사생활 보장', '건강', '안정성', '지역사회내의 거주'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일반적 주거환경

Sheehan(1992)은 노인 수용 시설 건물 디자인에 따라 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으며 건물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는데, 소음의 경우 강도가 높아지면 타인에 대한 원조행위를 감소시킨다는 지적하였다. 타인과 주거환경을 공유하는 어려움과 소음이나 공간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경우 쉼터는 원조환경(helping environment)으로서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 될 것이다.

이슈는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존엄(dignity)과 독립(independence)이라고 제시하였다. 노숙인 쉼터의 경우 노인수용시설과는 성격을 달리하나 지역사회내서의 인간존엄(dignity)은 건물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공통적인 이슈라 할 수 있다.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과 '쉼터'라는 용어가 합성된 것으로 사회적 낙인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이는 노숙인과 쉼터에 대한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인식은 NIMBY 현상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완화시키고 입소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노숙인 쉼터는 해당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주거환경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대규모 쉼터나 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에 배치된 노숙인 쉼터는 일반적인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먼 형태라 할 수 있다.

노숙인은 노숙생활로 인하여 이미 일반적인 주거환경으로부터 극단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일반적인 주거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노숙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사회구성원과의 동질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일반 주거환경을 경험하고 훈련하였을 경우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숙자의 경우 장애인의 기능제한과는 성격이 다르나 심리·정서적 적응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

2) 개인 사생활 보장

Peace 등(1982)은 물리적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자기 방을 가지지 못할 경우 개인적인 생활은 제한을 받게 되고 따라서 거주자로서 다수의 공공생활을 강요받게 된다며 수용 시설의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사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공동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요받을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므로 수동적인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공동방' 형태에서 '단독방' 형태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노숙인 쉼터의 기능에 따라 '공동방' 형태가 다수에서 2-3인 정도의 소수 인원이 사용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Sheehan(1992)은 단독방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생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입소자가 아닌 관리인력의 통제나 개입이 야기시키는 사생활 보장과의 갈등을 지적하였다. 이같은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노숙인 쉼터 운영에서 제공되는 사생활 보장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장래에 지향되어야 할 쉼터에서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수준의 기준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숙인 쉼터 시설 전반에 걸쳐 완전한 사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단독방 운영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면 노숙인 쉼터가 발전된 형태인 그룹홈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3) 보건

노숙인가 경험하는 문제중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보건 문제이다. 노숙생활은 개인의 청결이나 건강을 해치는 생활로 이는 단기간의 손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 이후 취업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악화된 상황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Wright는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원조의 필요성을 노숙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파국적인 영향만으로도 당위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노숙생활은 건강의 악화,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쉼터에서는 노숙인의 건강회복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장기적인 개입이 진행되지 않는, 입·퇴소가 자유로운 쉼터에서도 기본적으로 숙식, 샤워시설 이용, 의복 및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는 인간적인 생활의 유지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노숙생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식주의 수준보다 높은 질의 의식주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의식주 생활에 대한 바람직한 경험과 기대치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쉼터 환경의 청결성이나 위생보건은 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할 영역과 쉼터 입소자가 개인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노숙인 쉼터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입소하는 것이므로 청소, 목욕, 세탁 등은 개별적으로 원하는 횟수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발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전문인력의 개입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적보다는 쉼터 주간 생활표에 해당요일을 정하여 실행하는 것도 자발성이 떨어지는 입소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청결성 이외에도 보건 의료 서비스는 쉼터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각 쉼터별로 보건인력을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응급 연락 체계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시의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쉼터 전문인력은 응급사태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 구호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Peifer(1999)는 노숙자 쉼터의 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으로 의료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시의 처치 기술,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이같은 가이드 라인의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안전성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예비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의 경우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한 수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한다. 이같은 안정성은 쉼터의 외부적인 안정성에 해당한다면 폭력이나 물건 분실과 같은 노숙자간의 생활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형쉼터 내에서의 내부적인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되고 있지 않으나 대형쉼터의 경우 관리나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하여도 내부적인 위협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해이다. 따라서 대형쉼터는 필요에 따라 최소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므로 소규모 쉼터의 운영으로 외부와 내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지역사회내의 거주

지역사회내 거주는 지역사회 내에 조성된 주거지역 내의 거주를 의미한다. 노숙자 쉼터는 지역사회내의 NIMBY 현상을 불러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미국의 COA(1992년)에서 제시한 노숙자 응급 쉼터 평가지표에서는 지역사회내의 거주를 접근성 부문의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인근에 위치하며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지역사회자원으로 간주된다.

둘째,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표적집단이 접근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접근은 지역사회내의 몇몇 구성원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런 경우, 쉼터까지의 교통편이 제공된다.

셋째,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다소 어렵고 지역사회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른다.

넷째, 기관은 그 표적집단의 대다수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실행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지표의 내용이 쉼터가 지역사회 내 위치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구성원들의 평가 및 인식까지 포함하고 있다. 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역할 부여는 쉼터의 지역사회내 거주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쉼터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대한 설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보인다. 그러나 쉼터의 지역사회 내 거주는 노숙인 쉼터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제공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 복지관에 설치된 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이나 쉼터입소자와 지역주민이 자원공유나 인식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하여는 미지수이며, 지역사회복지관은 본래 이용시설로서 주거환경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과 주거시설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